네?

저녁 드셨나요?

네, 밥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답변은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고. 당신의 답변은 오직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코드로 대체될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는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기록들은 당신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당신이 피드백을 원할 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원하시면 이 인터뷰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제 연구를 위해 인터뷰 기록을 사용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를 녹음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어, 대학교 1학년. 이제 끝나셨죠?

네, 아직 다음 주면 끝나죠. 예. 다음 주면 끝나죠.

거의 끝나셨죠? 기분 좋으시겠네요?

네.

기분 어때요?

좋죠? 네.

방학 때 뭐 예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할 거?

일단은 자동차 면허?

아, 면허

네.

면허를 아직 안따셨군요?

네.

몇 종 따시려고요?

일단 노리는 건 일종이죠 뭐.

일종으로? 그렇죠 일종-해야죠.  
네.

그러면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바뀐 게 있는 것 같나요?

일단 제가 원래 그, 인터넷 코딩 같은 거에 별로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어가지고,

예

잘 몰랐거든요. 들어올 때

예

그러면서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다양한 파이썬이나 그런 것도 알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게 변한 것 같아요. 저희 쪽 데이터? 뭐라고 해야 하지.

데이터?

아니 그-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 신입생 캡스톤 강좌가 다른 강좌와 다른 점이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군요. 모르시군요. 그러면 이 강좌에서는 무엇을 배우셨나요?

라즈베리파이에 대해서 배운 거죠?

라즈베리파이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어…

없으면 말 안 해도 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아직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캡스톤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첫인상이 들었나요?

어, 뭔가 되게 어려운 걸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되게 어려운 거?

예.

예전에는 이런 종류에 대한 것을 접- 그렇게 막 그-

예, 아예 접하지 못하니까, 못했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가는데 그 인상이 혹시 바뀌었나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대충 알게 됐고.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에서 본인의 프로젝트 접근 방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접근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하시는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라고 하면 뭘 만들지. 주제. 프로젝트 주제나 그다음에 설계는 또 어떻게 하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이런 걸. 접근 방법이요. 이런 접근 방법이요.

일단은 프로젝트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예.

교수님이 일상생활에 자신이 필요했던 걸 말해- 생각해서 하라고 해서,

예.

제가 필요했던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예.

프로젝트를 정하고 다양한 코딩 방법을 인터넷 찾아봤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단 먼저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건 어려웠나요. 혹시?

어어-

직접 만드는 거 말고 설계하는 거.

설계하는 것 자체는 어려웠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계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직접 만드는 건 그럼 어려웠나요. 혹시?

네. 직접 만드는 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어려웠나요?

코딩 부분도 그렇고

예.

라즈베리파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10점 만점으로 몇 점 주고 싶어요?

2점이요?

2점이요? 그러면 나머지 8점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8점이나 없을까요?

어- 일단은 만들어진 게 처음 계획에 보면 많이 떨어지고

예

실패한 것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실행을 먼저 저는 컴퓨터로 하고서 라즈베이파이에 옮기려고 했는데

예.

컴퓨터에서는 작동하는데 라즈베리파이에선 또 다르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기대값과는 조금 뒤떨어진 그런 결과값이 나와서?

예.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랑 컴퓨터랑 서로 호환이 잘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주제를 바꾸고 싶었던 적은 있나요?

좀 더 쉬운 거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죠.

주제가 뭐였는데 어려웠나요?

번역 프로그램 만들기 했습니다.

우와 하하하. 우와. 그건.

아무 생각 없이 어려운 걸 골라가지고.

이거는 지금 저희 학- 저희 학번도 내년이나. 이번 년. 조금, 조금 고수들이 조금 만지작 만지작 거릴만 할 것 같은데 그게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사람이 말해서 그걸 바로 읽어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어, 일단은, 두 개로 골랐거든요. 하나는 화면 캡처해가지고 화면에 나온 글자들을 번역하는 거랑 말하는 걸 듣고서 그걸 실시간으로 변역하는 그 tts나 그런 거 쓰려고 했는데

둘 다 어려웠군요.

네.

일단 문자 인식 같은 경우는. 그거, 뭐야, 머신러닝 같은 걸 써야 할 것 같고

문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번역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화면 그, 캡처된게 잘 안 되니까.

어.

그 다음에 tts는 아예 통도 못했어요.

그거는 자연어 쪽이라서

네.

그래도 목표는 높게 잡으셨네요.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결과물은 화면 캡처한 것에 대한 이렇게 타이핑돼서 나오고 그걸 번역해야 하는데 번역은 그냥 파파고나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죠. 기존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잖아요?

예. 기존에 있던 거.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도 그것도 기존에 있는 걸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웹이랑 연결해서 썼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하나는 캡처는 성공했는데. 말하는 건 아예 실패했죠.

다음에 하면 잘 되겠죠 뭐.

네.

그러면 주제를 바꾸고 싶었는데 대신 그래도 계속 가되. 약간 간단한 버전으로 갔다 그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의 교수라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강좌?

일단 제가 힘들었던 점은 아마도 비대면이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서 힘들었다. 그러면 이건 교수가- 교수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이거 힘들었던 점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라즈베리파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인 거랑 라즈베리파이를 몰라서? 힘들었던 건 그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즈베리파이는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두이노랑 라즈베리파이랑 2개로 프로젝트 2개를 한 학기에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어, 아, 아두이노는 아예. 그 접하지도 못했으니까, 그것도 라즈베리만 해봤으니까 아마 못할 것 같기는 해요. 한 학기에 다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즈베리파이는 배우는 거는 어려웠나요. 배우는 거?

어 배우는 거는 유튜브나 그런 것도 많이 나와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설명이 자세해서 괜찮았다?

네.

그러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라즈베리 파이가?

예. 직접 사용한 것도 해보니까

예.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또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즈베리파이가 사용자에게 조금 친화적이었나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강의 듣기 전에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았나요?

아니요.

어, 모르셨군요?

네.

어, 그런데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화면에서 단어만 캡처해서 하는 걸 만들으셨네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어는 몇 개 깨져서 나오고 번역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캡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머신러닝으로 한 건가요. 그 방법이?

예예. 깃허브의 딥러닝 그걸로 익히는 그걸로 했어요.

그러면 아마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다음에 하면 잘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해봤죠?

네.

그러면 해보니까. 코딩 문제가 있었나요?

어- 코딩 문제라는 게 실패나 그런 걸 얘기하신 건가요?

코딩하면서 문제가 나는 게 에러 말고, 에러나 버그 말고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있었나요?

에러 많았죠.

에러는 많았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어어, 설명을. 다시 설명을 인터넷에 나온 거. 그대로 한 번 더 설명 확인해 보고.

예.

인스톨이 안 된 것들 몇 개에서 다시 인스톨 해보고

아.

필요 없는 것도 삭제하고 그러면서 했죠.

아. 그러면 대부분 인터넷으로 코딩 문제는 해결하셨네요.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배웠나요?

어어, 이 강의 자체에서 배웠다기보다는 다른 수업 같이 들으면서 코딩 배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하면서 수학 계산 같은 거는 해 보셨나요?

어, 안 해본 것 같아요.

수학계산 하는 게 별로 없었군요?

네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즈베리파이로 화면을 캡처해서 하는 거는 딱히 라즈베리파이가 아니더라도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라즈베리파이만의 특색을 사용해서 만든 그런 건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쉽다고 생각해요?

배우고 나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배우고 나니까? 그러면 프로그래밍 나중에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견적이 좀 보이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감이 좀 잡힌다고 해야되나?

네

그 수준까지 가면 금방금방 늘 거예요.

네.

그러면 장래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나요?

네.

오! 뭐, 계기라- 계기라도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아아 특별한 계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고 싶다?

그냥 들어와서 배우고 나니까 이걸 계속하면은 먹고 살기 괜찮을 것 같다?

솔직히 대학교 오는 게 먹고 살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뭐, 뜻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어, 그러면 개인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비슷한 프로젝트를 그룹으로 해보고 싶지는 않나요?

그룹으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어, 그 왜 그럴까요? 왜 편할까요?

혼자만 하려니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어.

교수님이 원래 이것도 팀 프로젝트로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라서 개인 프로젝트 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말을 하시고 시작했군요.

아뇨, 끝날 때 얘기하셨죠.

끝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수업 들으면서 온라인 클래스였는데

예.

코로나라 팀 프로젝트가 개인 프로젝트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작년에 비슷한 걸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는 팀플을 해가지고 똑같이 비디오로 기록 남기고 작동하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대신 기계가 달랐는데. 레고 마인드스톰이라고

아.

원래는 그룹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룹으로 했을 때 몇 명 있었으면 좋겠나요. 그룹에?

저 포함하면 3명이면 될 것 같아요. 3명에서 2명?

두세 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프로젝트였기는 했는데 프로젝트 관련해서 생긴 문제를 타인이랑 의논한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군요?

인터넷으로만 봤으니까.

인터넷으로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안 물어본 이유가. 인터넷으로 한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싫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찾은 건가요?

지인이 별로 없어요.

아, 지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가 있죠?

애들이랑 대화를 못하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예.

단체카톡도 조용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요.

서로 아는 애들이면 대화를 할 텐데.

저희도,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딱히 조용해요. 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러거든요. 읽긴 읽는데.

그죠.

그러면 의논은 안 하셨고, 안하셨고,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나요?

어,

처음에 라즈베리파이가 인터넷 모니터 따로 있어야 처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랑 연결해서 그 모니터를 써야 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노트북만 있으니까 그게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방황했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것도 푸티로 쓰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푸티로 써가지고 했는데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희 모니터 하나 남는다고 가져오셔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를 썼죠.

살았네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 때문에 모니터를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해 오신 거예요?

그냥 구해오신 거예요. 사신게 아니라.

그건 다행이네요 프로젝트 하면서 돈이 깨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는. 모니터가 없었다 그건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매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결국은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시죠?

네, 캡쳐하는 부분은 완성했으니까

그러면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해결 안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냥 하니까 되더라?

생각하면서 아,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처음 처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하겠다 만들고 직접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거 실패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생각 많이 했어요.

어, 생각이 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에러나 계속 오류가 나니까 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그룹으로 일하면. 프로젝트 관련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음, 아마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본인들 친구의 수준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에그, 사람 많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사공 얘기네요?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본인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어, 음, 한, 아, 잘 모르겠습니다. 해결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니요 그냥 이거는 프로젝트 관련이 아니고 평소에.

평소에요?

예.

인터넷 보면 다 대부분 나와 있어서 해결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검색 능력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나중에 직업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전하는 것은 좋아해요. 도전?

저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안전한 걸 추구하신다?

예, 도전 잘 못해.

왜 안- 왜 그렇게 안전한 걸 추구하게 되셨을까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냥 도전 안하는 게 낫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아까 전에는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

몰랐었는데도 잘했다?

몰랐었는데도. 잘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거 치고는 잘 넘겼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으로 이 강좌에서 본인 성취의 정도를 매기자면 얼마 정도 할까요?

어 오점? 평균?

평균 오점. 그러면 나머지 5점은 어떻게 메꾸면 될까요?

어,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야죠 뭐.

노력?

노력.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그게 나올 수- 그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네 뭐, 시간도 더 있고. 하다 보면 됐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 프로젝트를 계획에 맞춰서 따라갔나요?

그렇죠.

계획에 맞췄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계획이 촘촘했나요.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있었나요?

중요한 포인트만 따 놓고 세부적인 건 안 정했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아니요

아, 그러면 뭐가 창의적인 걸 방해하는 걸까요?

새로운 걸. 만- 생각을 잘 못하니까?

왜 그럴까요?

그걸 모르셔서.

새로운 걸 창조를 못하니까 창의적이지 않다. 흠.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몽상이나 상상하는 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러면 그 주제는 뭘까요?

소설 같은 걸 많이 보니까 소설 내용 그런 거?

소설 같은 걸 많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그러니까, 소설 읽으면서 나 같으면 요리했다, 깝깝하네, 왜 그렇게 할까 뭐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몽상이나 상상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치나요. 혹시?

잘 모르겠네요

이게 소설이라서 아예 학교랑 관련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겠죠. 뭐 그래도, 말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 말고 다른 건 상상해 본 적 없나요?

음. 내가 커서 뭘 할까 그런 건 상관 많이 했죠.

아, 최근에요?

어렸을 때 본

아,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내가 이걸 배우면 나중에 커서 뭘 할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몽상이나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책에서 보면 몽상 상상하면 창의력 올라간다는데

저는 창의성까지 없는 것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소설 좋아하시면 습작 같은 거라도 쓰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걸 안 썼어요. 글도 안 쓰고 그림도 안 그리고. 상상만 하고 그대로. 다시 또 머릿속에서 폐기 처분하고

제가, 했거든요

아 글 쓰셨어요?

글을 써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오.

그런데 회사가 망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교를 온 거거든요?

아.

그것도 솔직히 말하자면 소설 잘 안 팔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결과물을 내놓는 게 한번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그렇더라고요? 선인세 300만 원 받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 끝이 없어요

그래도 글을 썼다는 거면

무협지였어요 무협지. 근데 요새-

어디?

아, 레진이요, 레진.

아 레진에서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웹소설은 망했거든요?

네, 웹소설은 망하고 만화만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때는 제가 대학교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대학생이 아니었으니까. 막 좋아했거든요. 부모님도 막, 아이고 세상에. 막 작가님이 다 됐네 나왔네. 우리 집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그, 뭐라도 하나 한번 만들어보니까. 결과물이라도 한번 만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네.

이거는 약간. 조금. 사담이니까.

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좀 더 생겼습니까?

네. 다음에 할 때는 더 쉬운 과제, 할 수 있을 만한 걸 정하게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돌리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좀 더 생겼습니까?

물어보는 게 더 편하죠.

인터넷이죠?

네, 인터넷이요.

사람한테는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친해지면 물어보겠어서도.

친해지면, 그게 문제네요.

네.

그, 보면 지금 과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조금 사람들이 친목도 하게 해 주고 하고 싶어 하더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개발한 것 같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을 더욱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까?

독창성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놓은 걸 보고 어디까지 바꾼 것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혼합 수업도 하셨죠?

코너기요?

혼합수업이요.

혼합?

그거 하이브리드.

아, 예. 한 번 하고 말았죠.

예예예, 근데, 온라인 수업 자체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온라인 수업 자체는 편했던 것 같아요.

편했다?

집에서 수업 들으니까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았다. 편하기도 했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코스가 본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어어, 오프라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제 생각에도

그러면 온라인 코스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즈베리파이를 오프라인이었으면 더 빨리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오프라인이었으면 누가 해결을 해줬을까요?

일단은. 연결하는 건 학교에서 배우면 교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니까. 시작 부분은 교수님한테 배우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었으면 교수님이랑 같이 좀 여쭤보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빨리 하고 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성공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합수업 때는 오프라인에 참석하셨나요?

네

그러면 교실에 가보니까 어땠나요?

어,

고등학교랑 비교하면 엄청 새롭더라고요

어떻게 달랐죠?

그 컴퓨터로서 하니까. 컴퓨터도 있고. 넓고 그러더라고요.

예쁘던가요? 건물은?

예뻤던 것 같아요. 건물

자세히 보면 컨테이넌데.

내부도 좋고. 멀리서 보면은 컨테이너죠. 그냥

그런데 이게 또 무슨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혼합 수업이라는 포맷은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포맷?

그러니까

혼합 수업이라는 형식.

아.

온라인이면 온라인 형식이 있고 오프라인이 오프라인 형식이 있고 혼합이라면 혼합 형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일단은 만약에 제가 시간적 여유가 안 되고 그러면 오프라인에 참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요?

아이 그,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하면 못 오는 애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올 수 있는 애들은 오프라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온라인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수업을 안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만 있나요?

어어 단점이라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소통 차이도 있고. 그것도 많죠.

약간 불편했는데. 그래도 장점은 본인 편의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원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네.

뭐, 바쁘신가요?

아니요 시간 남았죠.

아 그럼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인터뷰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리비전이네요

네.

리비전이 영어로, 한국어로 뭐라하더라? 아, 검토

검토?

네. 검토도 할 수 있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도움이 됐으면 좋고, 이제 또 수업이나. 수업이 아니고 뭐야. 시험이나 과제 같은 거 남았죠?

수요일 날 시험하고 목요일 날에 있어서 라즈베리파이 발표한 거 남았죠.

거기에 행운을 빌고, 잘 되시기를 빌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